

로또 청약 '줍줍' 못한다...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3월부터 시행 아파트 발코니 확장 이유로 다른 옵션 '끼워팔기'도 불가

자격 제한이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 '청약 과열' 사태를 빚었던 무순위 청약이 오는 3월부터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기존 지역제한이 없는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

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추후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벌어졌던 게 사실이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여기에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는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돼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태도 방지한다.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로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민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25~2월 5일까지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 '2021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를 받는다.

기능경기대회는 지역 숙련기술인들의 축제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숙련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으로, 광주 지역 뿌리 산업인 '금형'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산업융드론제어', '사이버보안', '클라우드컴퓨팅' 등 총 53개 직종이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광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소속 학교, 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면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소정의 상금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이 면제되며, 오는 10월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일학습병행,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 등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회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산업체 근로자 입상 우대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는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추가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세금부담'에 쏟아진 법인 주택 개인들이 매입

광주 11월 4193건·12월 1961건 개인 구입 11월 4154·12월 1929건

올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를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했고, 해당 물건은 개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부담에 법인들이 물건을 내놨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탓에 개인들이 이를 거머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광주지역에서 법인들의 주택 매도는 4193건으로 파악됐다. 전달 351건에 비해 무려 12배(1095%) 상당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의 법인 주택매도건수는 1961건으로, 작년 11월과 12월에만 6154건의 매도가 이뤄졌다.

작년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

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특히 법인들이 판 주택 대다수는 개인들이 거머쥔 것이다. 11월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9.07%(4154건)은 개인이 산 반면, 법인은 0.9%(38건), 기타는 0.02%(1건)에 불과했다.

12월 역시 개인이 98.37%(1929건)으로, 법인과 기타는 각각 1.48%(29건)·0.15%(3건) 수준에 머물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집을 구하려는 개인들이 법인이 던진 매물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키높이 운동화로 자신감 높이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MLB 매장서 직원 키높이 운동화를 선보이고 있다. 키높이 운동화는 밑창을 두툼해 착용 시 키를 더 커보이게 하는 운동화로, 교복에도 잘 어울려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 유지

1월 셋째주 가격동향...상승폭은 감소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또 올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는 매매 가격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14일 0.40% 상승률을 기록한 뒤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21일 0.29%→28일 0.18%→1월 11일 0.13% 등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산구가 0.17% 상승해 가장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지난달 14일 0.50% 상승 한 뒤 0.30%→0.20%→0.19%→0.18%→0.17% 등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남구도 같은 기간 0.55%까지 오르다, 이달 셋째 주 0.14%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지역 전세가격도 이달 셋째 주 0.15%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역시 지난달 14일 0.35% 상승을 기록한 이후 0.25%→0.19%→0.14%→0.16%→0.15% 등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랐고,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와 광양이 각각 0.09% 올랐고, 순천도 0.05% 상승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